

군산시 나운2동 손기환·김희경 부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나운2동에 사는 손기환·김희경 부부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했다.

이들 부부의 나눔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민모터스, 민하우스, 아우어인어스를 함께 운영하며 지난 2019년부터 줄곧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이어왔다. 때로는 쌀로, 때로는 현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보탬다.

지난해에는 2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행복나눔 공유공간’에 전하며 겨울의 문턱에서 이웃들의 밥상이 훈훈해 지기를 바랐다.

현재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세 곳의 업체는 모두 ‘착한가게’에 가입되어 있어, 일터 역시 지역 복지의 손길이 닿는 통로가 되고 있다.

손기환·김희경 부부는 “요즘처럼 다들 힘든 때일수록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일이 더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이들의 소박한 바람은 이미 나운2동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해마다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성금은 지역 복지 특화사업에 소중히 쓰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쓰일 계획이다./군산=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7-01 11면

<http://sjbnews.com/853846>